

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		보도자료 “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”		 페이스북 @kcanews  인스타그램 @kca.go.kr	
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					
배포일	2022년 6월 30일(목) (총 1쪽)	담당부서	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		
		담당자	김인숙 팀장 (043-880-5421) 김민지 과장 (043-880-5422)		

한국소비자원, 주요 생활가정용품 사업자와 정례협의체 발족

한국소비자원(원장 장덕진)은 국내 5개 주요 생활가정용품 사업자*와 함께 소비자가 안전한 생활가정용품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30일(목) 발대식을 개최했다.

* 라이온코리아(주), 애경산업(주), 한국피앤지판매(유), 헨켈홈케어코리아(유), (주)LG생활건강

생활가정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방세제·세탁세제 등 생활가정용품에 대해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구성됐다.

이번 발대식에서 소비자와 정례협의체 사업자들은 생활가정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
우선 협력과제로 주방세제를 먹거나 삼킨 경우의 응급처치 방법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통일화된 문구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응급처치를 할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.

아울러 안전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기의 형태가 비슷해 식별이 어려운 다양한 생활가정용품에 붙일 수 있는 점자 스티커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.

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사업자 정례협의체*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.

* 한국소비자원과 가전제품, 정수기, 위생용품, 화장품, 자동차, 유통 등 12개 분야 총 136개 기업이 산업별 소비자의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위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 출범

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려드립니다	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kca.go.kr	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--	---	---